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tlanta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정책 개요:

- 교육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미국사회에서 근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 높은 수준의 교육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보다 시민적 삶과 더 나은 경제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 조지아 주는 모든 다른 주들이 무비자 상태의 학생들에게 고등(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정책은 무비자 상태로 되어 있는 아시아계 및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이민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케네소 주립대학교 (Kennesaw State University) 학생인 제시카 콜로틀(Jessica Colotl)이 2010년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과정에서 그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신분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그녀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제시카 같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의 학생들이 조지아의 주립대학 및 주립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격렬한 논란을 유발시켰습니다.

2010년 10월, 조지아 대학 시스템의 이사회 (Board of Regents of the Georgia University System)는 2011년 가을학기부터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조지아 주립 대학 및 대학교 중 최고 5위까지의 대학교에는 다니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후,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조지아 주의 모든 대학교 (35개의 전문대학과 단과대학, 그리고 26개의 기술대학)에 입학 및 재학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개의 주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주 법안들은 서류미비자 상태의 학생들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DREAM 법 입법 이전에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왔으며 2년의 군복무 혹은 대학과정을 마친 상태이며 중대한 범죄나 추방조치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하는 연방법률인 “소수 외국인들에 대한 발전, 위안, 그리고 교육에 관한 법”(DREAM 법)과 전면 대조됩니다. DREAM 법에 따르면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전까지 조건부 거주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 몇 년이 걸립니다. DREAM 법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DREAM법을 지지하는 일반 대중의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러한 문제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반(反) DREAM법 주 법안들은 모든 인종 그룹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천6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재 비자서류 없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나라에서 건너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조지아 주립대학교 (Georgia State University)에 재학중인 서류미비자 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dvancing Justice - Atlanta은 조지아 주의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정책들과 대학교육에 대한 권리를 지지합니다.

- **교육은 기본 인권이며 미국사회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1977년 미국은 “모든 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 및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고등교육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인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약했습니다. 더군다나, Plyler v. Doe의 중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교육이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했습니다. Plyler의 판례는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지만,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특정 집단이 우리 사회가 기초를 두고 있는 가치들과 기술들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부터 거부당하였을 때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막중한 경제적 및 사회적 손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 **대학교육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보다 문명화된 삶과 더 나은 경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육수준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며 이는 곧 더 많은 조세수입으로 귀결됩니다. 200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들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근로자들에 비해 62%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평생 수익 또한 대학교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건강하고, 책임감 있으며 사회 시민의식도 더욱 강한 시민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국가보조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덜 의존하게 되며, 이는 곧 우리 경제 기반의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
- **조지아 주는 서류미비자 상태의 학생들에게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다른 주들과는 달리 홀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조지아 주의 서류미비자 상태의 학생들은 in-state tuition(조지아 주 현지인의 특혜/ 할인된 등록금)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지아 주 납세자들이 그들의 세금으로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들은 서류미비자 학생들도 공립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중 10개의 주에서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몇 가지의 주 거주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in-state tuition (주 현지인의 특혜/할인된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反) DREAM법 주(州) 법안들은 이민 문제나 실업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미비자의 학생들이 미국시민인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잘못된 인식의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조지아 공립대학교에 재학 중 서류미비자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In-state tuition(주 현지인의 특혜/ 할인된 등록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은 전액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입학시켜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시키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수익을 높여줍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우리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 www.AdvancingJustice-Atlanta.org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